

“청년예술가들의 현실과 미래를 말하다”

유중아트센터, ‘청년예술인정책세미나’ ...상황 진단하고 발전방향 모색



청년예술인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중아트센터(이사장 정승우)가 청년 예술가들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대중과 예술가를 위한 열린 소통의 장을 기치로 ‘문화예술도시 서초’는 물론, 국내 문화예술계의 가치정립과 발전에 앞장서는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이 청년예술인들과 멘토가 함께해 우리나라 예술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과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청년예술인정책세미나’를 10월 11일 유중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청년예술가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병서 동덕여대 대학원장, 김종근 평론가,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멘토로

참여했고, 패널로 청년예술가 김지훈 작가(동양화), 정혜윤 작가(조소), 연주자 김도은(피아노)씨가 함께했다. 세미나에서 김지훈 작가는 “자신은 ‘FragileMan(후라질맨)’이라는 작품을 통해 젊은 이들이 놓인 냉혹한 현실을 호소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직감하는 어려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저항하는 상징이다. 이번 세미나가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른 패널들도 청년예술인 정책과 지원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투자하는 등 내실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최병서 교수는 “지원을 하되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상할 줄 아는 시각,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학교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정승우 이사장은 “문화예술은 오랜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내는 학자와 같은 인내를 요구한다.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문화는 국가의 얼과 혼이 담겨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한편 유중아트센터는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대한민국 예술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